

지치부가우라 공원

시마바라반도는 수천 년에 걸친 자연재해에 의해 형성되어 왔습니다. 1792년 시마바라 대변 때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마바라만큼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1791년 초, 오바마초에 가까운 시마바라반도 서쪽은 일련의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792년 초 지진 활동은 동쪽으로 이동했고, 반도 중앙부 산 전체가 깨어난 것처럼 여러 지점에서 용암이 분출해 그 골짜기를 천천히 메워 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수개월에 걸친 격렬한 흔들림에 동부에서 발생한 지진 활동의 마지막 진동이 가세하면서 4,000년 전에 형성된 마유야마(819m)의 중상화산이 대규모 암설류를 일으키며 붕괴되었습니다.

이 산사태와 산의 대부분이 아리아케카일로 밀려들면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지역 전체에서 1만 5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시마바라의 마을은 다수의 작은 언덕으로 덮였고, 마유야마의 나머지 부분이 바다에 점재되어 있는 섬들을 형성했으며, 항구는 토사로 메워져 수심이 얕아졌습니다.

이곳 지치부가우라 공원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생긴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비극을 초래했다고는 하지만 지진은 뜻밖의 혜택도 가져다주었습니다. 새로운 대지의 갈라진 틈에서 용수가 솟아났고, 해저는 복잡해져 다양한 해양생물에게 풍요로운 서식지를 제공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야나기가우라라고 불렀는데, 1925년에 지치부의 궁전하(宮殿下)가 방문하여 이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신 것을 기념해 지치부가우라로 개칭되었습니다. 1970년 시마바라반도 현립공원으로 지정된 경승지이자 바다 공원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